

남북간 연락채널 복원 관련 통일부 입장

2021.7.27.(화) 11:30, 이종주 대변인(통일부)

남과 북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.

남북은 먼저,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

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며,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11시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.

오늘 통화에서 우리 측 연락대표는 '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되어 기쁩니다.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'라고 하였습니다.

아울러, 우리 측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양측 간 정기통화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, 북측도 호응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남북은 오늘 오후에도 통화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.

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합니다.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, 복원된 통신

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

<끝>